

# UN ESCAP 지속가능발전목표 성별 데이터 세분화 워크숍 참석 결과

## I 출장 개요

- 출 장 명 : 아태지역 SDG 지표 성별 세분화 데이터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  
(영어명: Sex-disaggregated data for the SDG indicators in Asia and the Pacific: What and How?)
- 출 장 자 : 박영실 사무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 출장기간 : 2016. 5.24.(화) ~ 28.(토), (워크숍 기간: 5.25.~27.)
- 출장장소 :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

## II 워크숍 구성

- 목적
  - 정부 및 이해 당사자의 정책결정과 증거기반 계획 지원을 위한 아태 지역의 성별 통계 생산과 보급 형식 개선
- 워크숍 진행
  - 6개 주제 영역\* 발표 후 그룹 토론 진행
    - \* ①정치참여 및 리더십, ②건강, ③경제활동 및 빈곤, ④교육, 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⑥재난위기 감축을 포함한 환경
  - 토론은 데이터 수요자와 생산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데이터 이상 (desirable)과 가용성(available)에 대해 논의하여 시각차 확인
    - \* 수요자: 정책부서(여성부), 국제기구 vs 생산자 (통계청)
  - 이어 데이터 갭 해소를 위한 통계전략 발표
    - \* 출장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부문 발표 (“Using various sources of administrative data for producing (sex) -

disaggregated statistics”)

○ 참가자 현황 : 약 60여명

- 국가: 15개국 35명 (통계청 16, 여성부 등 17)
- UN WOMEN, UNDP, UNFPA, ILO, UNESCO, ADB, SEAMEO 19명 등
- 그 외 관련분야 전문가 및 ESCAP 사무국 담당자 등

### III 워크숍 결과

- SDG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ing no one left behind) 포용성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통계전략으로서 데이터 세분화 강조
  - 모든 지표에 대해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민지위, 장애, 지역 및 기타 특성에 의한 완전한 세분화 목표
- 구체적으로 241개 지표 내에서 인구특성에 따른 세분화가 언급된 경우는 132개이며, 이 중 성별(38개) 및 연령(26개) 세분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그러나, 성별 세분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도 지표 내용에서 성별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88개
  - 목표5는 양성평등에 대한 것으로 전체 지표가 성별 세분화를 필수적으로 요구
- 세분화 수준은 성별 변수가 다른 변수와 병렬적인 경우(parallel)와 성별 내에서 다른 변수에 대한 추가적 세분화(nested)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 제기
  - 예) 비교: 성별vs 연령그룹에 의한 성별 세분화, 고용상태에 의한 성별 세분화
- 그러나, 각 국 통계작성기관은 원하는 세분화 수준의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
  - 정책부처는 세분화된 수준에서의 다양한 통계를 요구하나, 인력 및 예산 등의 한계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실제 제공 가능한 데이터는 한계

- 또한, 해당 인구집단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수치를 제공 가능한 것과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구특성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게 중요
- 데이터 세분화 과정에서의 장애물은 법 및 제도적 문제,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의 문제 등 다양
  - 각 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 가능 수준도 매우 차별적
- 데이터 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전략의 활용 강조
  - 자료 연계 (호주), 행정자료 활용(한국), 소지역 추정(네팔) 등의 기법이 데이터 세분화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 가능
  - 그러나, 각각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상황이 존재
- 지표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세분화 변수(성, 연령, 지역, 장애, 이민, 인종, 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세분화 변수(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구성, 소유형태, 직업, 난민지위 등) 등에 대한 논의

## V 출장 기대효과 및 감상

- (기대효과1) 국내 SDG 지표 세분화 전략 수립에 활용
  - 본 워크숍을 통해 습득한 결과물은 성별 이외의 다른 특성에 대한 세분화 전략 수립에도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바, 현재 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SDG 지표 세분화 및 항목 표준화 연구」에 적용 예정
- (기대효과2) SDG 글로벌 지표 개선에 대한 아태 지역 공동 대응 가능
  - SDG 모니터링은 국가-지역-글로벌 수준의 다층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수준은 국가와 글로벌 수준을 매개하는 역할
  - 글로벌 수준에서의 작업은 국가 및 지역의 경험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개별 국가 보다는 지역 수준에서의 공통 경험의 의견 제시에 효과적
  - 본 워크숍 결과물 또한 향후 UN 등의 성별 데이터 수집, 배포 및 사용 강화 및 방법론 개발 방향 설정에 활용 예정

○ (기대효과3)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범위의 다변화 모색

- 데이터 갭 해소를 위한 통계전략 등은 한국 통계청에서 기추진 혹은 진행 중인 것으로 향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대상 설정 과정에서 활용 가치 있을 것으로 예상

\* 행정자료 활용 발표 후 태국 통계청에서 방법론 전수 등 관심 표명

○ (감상1) ESCAP 워크숍은 아태지역 통계작성기관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매우 효율적이며,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감상2)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담당자와의 의견 교환이 중요함을 느낌

- 다양한, 세분화된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정책대상자는 해당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함
- 이는 정책 담당자로부터 통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초래 가능

**○ 주제영역1: 경제활동 및 빈곤 (Economic participation & poverty)**

▶Women and poverty: Vulnerable population group, regional disparities and characteristics

**요약:** 아태지역내 국가 및 말레이시아 여성과 소녀의 빈곤노출 현황 제시, 가계소득에 가구주의 성별·교육·인종이 밀접히 관계됨을 분석, 향후 이주노동자·장애인·난민 등 세분화 작업이 더 필요하며, 소득 측정의 한계점 언급

▶Unpaid work and domestic care: Vulnerable population group, regional disparities and characteristics

**요약:** 성 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에서 무급노동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 무급노동이 통계에서 갖는 의미, 자료수집과정,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SDGs 지표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지 논의. 사회적 편견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무급노동에서의 성별격차에 언급하며, SDGs에서 성별 불평등 논의 중요성을 강조

▶Measuring asset ownership and entrepreneurship

**요약:** 경제적 가치와 웰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위기 관리 및 의사결정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은 조사항목 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등에 있어서 표준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 이를 위해 UNSD/UN Women등의 주도로 몽골,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 조사 현장에서 주요 조사대상의 구분, 비협조적인 응답태도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세분화 변수가 더 많이 필요함을 발표

▶Bringing policy and data together

**요약:**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SDG 목표 실천 현황을 방글라데시 및 베트남에서 조사. 방글라데시에서는 성·연령·장애·종교 등에 따라서 전기사용, 위생과 리터러시 비율 차이를, 베트남에서는 인종 및 소득 등에 따른 출산 전 도움을 받는 비율, 휴대폰 소유 비율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관련하여 조사 및 행정자료 부족 및 표본 내 취약집단 누락 등이 이슈로 부각

**○ 주제영역2: 건강 (Health)**

▶Which population (sub-) group(s) tends to fall behind in Asia and the Pacific?

**요약:**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SDG 목표3과 관련된 건강서비스는 지역, 소득 및 교육에 따라 격차가 발생. 세분화에 필요한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반영을 위한 국가체계 구축 및 역량배양이 요구됨

### ○ 주제영역3: 정치 참여 및 리더십 (Participation & leadership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Monitoring women's lead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요약:**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여성의 정치 참여 및 리더십 모니터링에 관해 SDG 지표 5.5.1(=국회와 지방정부 의원 중 여성의석 비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지방정부와 정책결정 직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부재 문제가 있으며,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론이 개발 중.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티어'별 데이터 수집이 요구됨

### ○ 주제영역4: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및 위협적 행위 (Violence & harmful practices against women & girls)

▶Violence and harmful practices against women and girls

**요약:** 라오스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 전략 및 성 평등 국가계획 등 정책기반이 준비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능력 한계 등의 어려움이 있음. 역내 남남협력 포럼을 통해 경험과 지원 공유가 절실히 요구됨

### ○ 주제영역5: 자연자원, 에너지, 재난 위험 관리 (Natural resources, energy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Gende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nexus

**요약:** SDG는 성 관련 세부목표가 특정 목표나 세부목표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명시하지만 환경지속가능성 목표에서는 아직 제한적임을 설명

▶Gender equality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요약:** 개도국에서 농경지에 대한 소유·접근은 빈곤퇴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남성과 동등한 접근권이 주어지면 여성이 생산증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성 세분화 데이터가 여성의 토지 소유·보유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적 기반조치들의 중단, 수정 혹은 연장에 대한 검토 필요함을 주장

▶Regional trends on gende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요약:** 성 세분화 데이터는 조기경보, 대비계획 등 재난 뿐 아니라 교육, 사회안전망 등 손실감소를 위한 다양한 부문에 필요. UNDP는 아시아 지역 (캄보디아, 베트남 등) 국가재난 손실피해 DB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후 필요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 데이터를 반영 중

○ 주제영역6: 포용적,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

▶Participation and Learning Outcomes

**요약:** SDG 4 목표(=통합적이고 공평한 교육 등 평생교육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에 관해 어떤 인구그룹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고 누락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 노인, 장애인, 재난/농촌 지역 인구그룹이 상대적으로 취약그룹으로 분류되었고, 기초/기능적인 리터러시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예: 필리핀). 재정·정책적 지원과 데이터 세분화 및 교육평가 시스템의 역량 구축 필요성 강조

▶Bringing All Children in School

**요약:** 세부목표 4.1 (= 모든 초등·중등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은 수의 ‘학교 밖’ 아동비율이 높음. 성, 연령, 지역 뿐 아니라 장애, 인종, 아동노동 및 이주상태가 포함된 세분화 데이터가 필요하며 적은 수의 표본크기와 비정기적인 조사가 문제점으로 부각

○ 통계전략: 데이터 세분화 개선 위한 다양한 소스의 자료 결합 (Power of multiplication: combining data from different sources to improve data disaggregation)

▶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 and its benefits for producing and disseminating disaggregated data

요약: 호주 통계청은 정부 및 학계 등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통합 데이터 시스템(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을 구축. 다양한 소스의 자료 연결을 통해 뼈대를 구축, 교육통계나 성별 임금격차 등 분석에 활용. 이 시스템은 경제(사업체), 사회(인구), 환경(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과도 매우 밀접

▶PSA Project on Small Area Poverty Estimation

요약: 필리핀 내 소규모 지역 빈곤추정통계의 필요성이 정책결정 측면에서 제기됨. 여러 원천 데이터를 통합하고 센서스에서 가져온 상세자료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빈곤 감축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 빈곤 모니터링 및 정책형성과정에 활용

▶Data challenges for tracking progress in policies for women's empowerment and family planning

요약: 분산통계시스템을 갖고 있는 태국은 21개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며, 성별 통계개발 계획도 그 일부에 속함. 여성권의 신장 정책에 필요한 성별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하며 생산주기, 역량 및 크기 면에서도 부적합. 향후 성별 통계 및 지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이슈/데이터 분석 통계조직을 강화할 계획

▶Combining different sources of data for analysing situation of women

요약: 말레이시아 여성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비밀보장을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제공시기 등의 문제가 발생. 성별 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해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 진행 중이며 향후 데이터 세분화 수준을 향상하고 중앙 집중형 성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Using various sources of administrative data for producing (sex) disaggregated statistics

요약: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세분화되고 다양한 통계수요 증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료 등을 결합한 정책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사례를 소개.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도전 상황, 예컨대 자료 공유를 위한 관계부처의 설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계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 설명